

주말에 6번 외식하면 1만원 돌려준다...배달도 인정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진행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동일업소 1회 제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까지 5번 외식하면 6만원은 1만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행사 중 하나인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요일(14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16일)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이용하면 6번째 외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으로 1만원을 환급해준다.

참여 카드는 KB 국민, NH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이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일 경우 사전 응모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응모 후 유흥업소를 제외한 외식 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참여 실적으로

인정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배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달 앱 이용 시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만 한다. 카드사와 외식 단체 등은 음식점 방역 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aT는 온라인 이벤트 '푸드페스타'를 통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카드사 응모 및 실적 달성 등을 인증할 경우 추천해 경품을 제공하는 추가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본격적인 캠페인 추진에 앞서 13일 오후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외식 활성화 상생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외식 활성화 캠페인으로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정부, 수해 농가 생계비 123만원 지원...영농대출 이자 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1.5%→0%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병해충 방제, 영세·고령농 우선

정부가 최근 연이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촌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둘러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는 감면하거나 상환을 연기해준다.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시설도 보완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13일 기준 2만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벼 피해가 2만2304ha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73만ha)의 3%가 침수되기도 했다. 기타 밭작물(1802ha), 채소류(1638ha), 인삼 등 특작(698ha) 품목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축사 침수 탓에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000여 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3마리 규모의 가축이 폐사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 무이자대출...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약대 벼·콩 등은 59만원/ha, 채소류 192만원/ha를, 대파대 벼·콩 등은 304만원/ha, 과채류 707만원/ha 등을 준다. 소는 마리당 140만원, 생계비는 123만원(4인 기준)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1.5%→0%로 감면하고, 상환을 최대 2년 연기해줄 방침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에 대상자 명단을 통지 후 농협이 일괄조치할 예정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5%) 신규대출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 대환용 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0만원 한도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용자도 제공한다. 연면적 150㎡이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한 과수농가에 떨어진 배가 나뉘고 있다. 구례에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380mm의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 지류 서서천 제방이 붕괴됐다.

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용자를 최대 2억원(2% 고정 또는 변동금리)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다문화가정·조손 가구 등 1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세탁·청소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병해충 확산 가능성 높아...드론 동원해 방제

농식품부는 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동원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 중이다. 벼 도열병 등 병해충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영세·고령농 등 자가 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먼저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15~50% 농약 할인공급(농협) 및 생육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 제거·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인력 지원도 투입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가축방역관(994명)과 공수의(866명)를 축사 피해 농가에 파견해 가축 임상예찰 및 긴급 동물 의료지원도 실시한다. 한우자조금단체와 협력해 피해농가에 사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 SF) 방역도 강화한

다.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양돈 농가에 대한 전화, 문자 예찰도 지속하기로 했다.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구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해 전국적으로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도 시작한다.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수리봉사는 특별재난지역 및 섬진강 수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18일부터 진행된다.

◇수리시설 보완...비축물량 방출로 농산물 공급량 조정

농식품부는 침수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해 배수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수리에 나섰다.

향후 붕괴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도 설치한다. 총 저수용량 30만t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238개소(21%) 설치,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호우로 인한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로 공급량을 조정한다.

전남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클라우드펀딩' 쇼핑몰 입점 추진

전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온라인 '클라우드펀딩' 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다.

전남도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 온라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소비자 호응이 높고 기업 매출 달성률이 가장 효과적인 '와디즈(wadiz)'를 선택해 입점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세 페이지와 스토리텔링을 제작 중이다. 와디즈(wadiz)에서는 이달 말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입점할 5개 제품은 ▲쌀로 만든 단팻빵(㈜아뜰리에 이화) ▲옥과 맛있는 캔김치(옥과맛있는김치영농조합법인) ▲나물말키트세트(농업회사법인(주) 나물사랑) ▲개망고들빼기 김치(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김부각(정남진우리농부각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염성열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와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난민 통번역가·공인 탐정...

정부, 실업난 해소 '新직업' 카드 꺼낸다

구조 변경에 대응·일자리 창출

난민 통번역가 '자격증' 도입

정부가 '난민 전문 통번역가' '공인 탐정' 등 신직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신산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미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방안 실행에는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경찰청·산림청·소방청 등이 총출동한다.

정부는 생활·여가·문화(6개), 융·복합 신산업(6개), 재난·안전(2개) 분야에서 신직업 14개를 발굴했다. 우선 난민법을 고쳐 난민 전문 통번역가를 대상으로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양성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난민 전문 통번역가의 난민 신청자 면접 참여를 규정 중이나 자격 제도가 없어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아동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전문 관리자', 기부자를 발굴해 예술가 재원 지원의 가교 구실을 할 '문화 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산림 레포츠 지도사', 목재 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보유한 '목재 교육 전문가', 오디오북 콘텐츠를 낭독하는 '오디오북 내레이터' 등도 있다.

융·복합 신산업 분야 신직업은 건설 산업에 첨단 기술을 더하는 '스마트 건설 전문가', 첨단 기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을 다루는 '미래차 정비 기술자', 친환경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녹색 금융 전문가', 1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커머스 크리에이터' 등이다.

재난·안전 분야는 인명 구조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민간 인명 구조사'를 육성한다. 관련 구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응시 자격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운전하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있다. 오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인 탐정과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공인 탐정의 경우 관리·감독 기관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 업무 범위를 제한·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관련 입법을 재추진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유품물 유통 등 사회적 인 부작용이 발생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디지털 장의사의 불법 활동을 근절할 방안을 연구한 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는 국가 자격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 지원·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에는 없지만,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 받아 향후 도입될 잠재력이 큰 신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이버 도시 분석가 등(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 ▲인간-기계 협업 관리자 등(공학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축가 등(녹색 경제) ▲개인 기억 큐레이터 등(사람 및 문화) ▲디지털 재단사 등(제품 개발 및 판매·마케팅)이다.

김민정 기자

오늘은 '택배없는 날'...17일부터 순차배송 시작

14일 '택배없는 날'이 시행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우체국 소포위탁배달 등이 14일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한다. 택배사들은 토요일에도 배송을 하지만 15일은 광복절 연휴인만큼 휴무한다. 이 때문에 월요일인 17일부터 택배 물

량이 차레로 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택배업계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날 정상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체배송망을 갖춘 쿠팡의 로켓배송, SSG닷컴의 슛배송, 마켓컬리 셋셀 배송 등은 '택배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택배사에 위탁해 이뤄지는 GS25 등 편의점 택배는 일부 중단된다. CU의 경우 5kg 미만 소량 택배에 한해 14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